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39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20,19-31)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요한 20,19-31

하느님께서서는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당신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비를 전하는 일환으로 교회 안에 하느님의 자비주 일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성녀의 영적일기를 통해 당신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녀의 영적일기에 나와 있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죄 많은 영혼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 죄 많은 영혼아, 너의 구세주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너 자신을 내게로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에게로 간다. 아이야, 너의 아버지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너를 용서해 주고 너에게 당신의 은총을 쏟아 부어 주고 싶어 하시는 자비로우신 너의 하느님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여라. 너의 영혼이 나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중한지 모른다! 나는 네 이름을 내손에 새겨 두었고 너는 깊은 상처를 내 마음속에 남기고 도망쳤다.“

**영혼:** “주님 저는 최악의 길에서부터 돌아오라고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투쟁을 위한 힘을 주겠다.”

**영혼:** “주님, 저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또 주님이 두렵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너는 하느님의 자비가 두렵다는 것이냐? 나의 신성함도 내 자비로움을 막지 못한다. 보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지상에 자비의 어좌를 세웠다. 감실이 그 어좌이고, 나는 그 어좌로부터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행원이나 보초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 때든지 항상 내게로 올 수 있다. 나는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게 은총을 주고 싶다.”

**영혼:** “주님, 저는 주님이 저의 수많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비천함이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 “나의 자비는 너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누가 나의 선함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심장은 너를 위해서 창에 찔렸고 너를 위해서 열려 있는 자비의 샘이 되었다. 그러니 와서 믿음의 그릇으로 은총을 길어 가라.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 너의 비천함은 내 자비의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너의 비천함에 대해서는 나와 논쟁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나에게 넘겨주어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는 너를 은총의 보배로 가득 채워 주겠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에 대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불신한 토마스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자비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기보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려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요.

##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탈출기 7,1-17,16

◆ 성경 퀴즈

\*탈출 7,1-17,16 까지 읽고 (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 )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 )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 )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 )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 )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2. 하느님께서 마음이 완강한 파라오에게 주신 열 가지 재앙을 서술하시오. (탈출 7,8-12,36)
3.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 )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 ). 그러면 어떤 ( )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 )와 ( )을 쳐서 나의 ( )을 드러내겠다.(탈출 14,17)
5. 굶주림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메추라기 떼와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답을 찾으시오.
  - ① 만나는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 ② 백성들은 이렛날에도 만나를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 ③ 모세는 후에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만나 한 오메르를 항아리에 담아 증언관 앞에 놓아 보관하였다.
  - ④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6. 모세: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어찌자고 우리를 ( )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을 ( ) 하려고 그랬소? (탈출 17,3)
7. 모세가 손을 들면 ( )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 )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 )과 ( )가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 )라 하였다. (탈출17,8-16)

\*도전 문제

탈출 15장 1-18절 ‘모세의 노래’를 소리 내어 함께 읽어 봅시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주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매일 매일 만나를 거두어들이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저마다 먹을 만큼" 주십니다. (탈출 16,18) 그러나 때론 우리는 욕심의 유혹을 받고 더 많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바랍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짧게 서로 나누어봅시다.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침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정수원 작곡

G D A Bm G Em A7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가 모여라

G D Em B7 A7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임철무 아

D A Bm G Em A7

종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G D Em A7 D B7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G D Em E7 A7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G D Em A7 D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